

2019 특별메세지 - 하나님의 사람 VI 비전의 사람, 감당하게 하시리라.

1. 걱정

걱정에 대한 성경의 관점은 분명하다.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다. 걱정과 염려를 하게 되는 이유는 문제 때문이다. 그 문제가 내 힘으로 해결하기 어렵다고 느껴질 때 걱정과 염려가 있게 된다.

[마태복음 6:31-34]

31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32 이 모든 것은 모두 이방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33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34 그러므로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아라. 내일 걱정은 내일이 맡아서 할 것이다. 한 날의 괴로움은 그 날에 겪는 것으로 족하다."

성경에서 보는 걱정에는 땅의 사고 때문이다. 의식주에 대한 문제가 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이다. 의식주는 사치에 대한 문제가 아니다. 걱정의 단계에서 고민하는 의식주는 '사치'가 아니라 '생존'에 대한 것이다. 생존에 대한 걱정은 사람이 할 수 있는 당연한 걱정인데, 성경은 걱정하지 말라는 것이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존을 무시하신다는 개념이 아니다.

성경에서 걱정은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라 말한다. 이방인의 구함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사고방식과 삶을 말한다.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이다. 의식주는 '공급'에 대한 문제이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의 '공급'은 자신 스스로의 노력으로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걱정이 되는 것이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사고방식은 이 공급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다. 그래서 32절에 하늘 아버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다. 아버지의 존재는 안정감이다. 공급자이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무시하지 않으시고 아시는 분이시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방인처럼 살지 말라는 것이다(32절). 하나님 아버지 없는 고아처럼 살지 말라는 것이다.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아버지께 대한 신뢰를 말한다.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 아는 삶을 말한다. 하나님은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아신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것은, 우리 또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다. 그래서 걱정하지 않는 것이다.

2. 엘리야

엘리야의 시대는 모든 상황이 어려웠던 시대이다. 가뭄으로 기근이 있었다. 정치적으로도 악한 왕 아합과 이세벨이 있었다. 이세벨은 모든 선지자를 도륙할 정도로 강력한 사람이었다. 엘리야 같은 위대한 선지자도 두려워하는 존재였다. 희망이 보이지 않는 시대이다. 오늘날로 말하면 신앙을 지키기 어려운 때이다. 하나님은 이 모든 상황에 지친 엘리야를 열왕기상 19장 로뎀 나무 아래에서 안식하게 하고 회복시키신다. 그리고 엘리야를 다시 만나신다. (크고 강한바람, 지진, 불 이후에 들려온 세미한 음성). 이 음성 앞에 엘리야는 자신의 마음을 토로한다.

[열왕기상 19:14-16]

14 엘리야가 대답하였다. "나는 이제까지 주 만군의 하나님만 열정적으로 섬겼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과 맺은 언약을 버리고, 주님의 제단을 헐었으며, 주님의 예언자들을 칼로 쳐죽였습니다. 이제 나만 홀로 남아 있는데, 그들은 내 목숨마저도 없애려고 찾고 있습니다."

15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돌이켜, 광야길로 해서 다마스쿠스로 가거라. 거기에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시리아의 왕으로 세우고,
16 또 남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라. 그리고 아벨므홀라 출신인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네 뒤를 이을 예언자로 세워라.

14절에서 엘리야는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열정을 고백한다. (주 만군의 하나님만 열정적으로 섬겼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엘리야의 충성된 마음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지금은 시대가 너무 악하기 때문에 모든 선지자가 죽고 나만 홀로 남은 상태이고, 이런 내 목숨도 위태롭다는 고백을 한다. 이 고백은 "나는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충성된 마음과 열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상황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라는 고백이다. 이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엘리야의 예상과 달랐다.

15-16절에 보니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기름을 부으라 말씀하신다.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시리아의 왕'으로 세우라. /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라. /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네 뒤를 선지자로 세우라"

하나님은 엘리야 스스로 감당하기 어려운 현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기름부어 사람들을 세우신다. 그리고 이들은 실제로 악한 시대를 종결하고 새 시대를 여는 사람들로 사용된다.

3.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결국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은 엘리야의 고민에 답을 하신다. 그것은 너무나 분명하다. 엘리야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상황과 문제이지만, 하나님은 감당하실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사건을 보며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깊이 알 때, 믿는 성도들은 땅의 문제를 해결하는 아주 중요한 하늘의 원리를 알 수 있다.

(1) 하나님이 해결하지 못하실 문제는 없다.

"걱정하지 말아라. 이방인처럼 사고하지 말아라.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는 존재가 내 자녀들이다."라는 걱정과 관련된 가르침은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우리의 온전한 신뢰를 묻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말씀이다. 모든 상황과 시,공간을 통치하시는 만물의 다스리는 주권이 우리 하나님에게 있다. 그러므로 그분을 신뢰할 때 우리 마음 안에 하늘의 살롬이 임하기 시작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분명히 말씀하신다. 지친 엘리야를 쉬게 하시고, 회복시키시고, 다시 목적지를 향해 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시며,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의 고민에 답을 하시는 분이시다. 그 엘리야의 하나님이 오늘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 우리 안에 이 믿음이 생길 때 세상이 흔들 수 없는 영적인 공간이 내 마음 안에 열린다. 그곳은 하나님의 임재, 즉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강력한 주권의 공간이다. 그래서 안정감이 생기는 것이다. 믿어야 한다.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해야 한다. 그때 우리의 마음은 굳고 경직된 마음에서 나올 수 있다. 굳고 경직된 상태는 반드시 부러지는 사고가 난다. 중요한 경기, 치열함이 예상되는 경기 앞에서 오히려 더 많이 몸을 부드럽게 풀어야 하는 원리와 같다.

(2) 감당하게 하신다.

결국, 하나님은 엘리야의 기름부음을 통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다. 엘리야는 할 수 없었지만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세운다. 그 징표가 기름부음이다. 기름부음은 하늘의 '권위'이다. 권위는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합법적 지위를 말한다. 엘리야의 기름부음에 특징이 있다. '장군' 정도가 아니라 '왕'을 세우신다. 새로운 싸움은 '장군'의 능력으로 감당이 되지 않는다. '지위'의 업그레이드가 일어난다. 왕위 권위가 필요하다. 여러 장군을 거닐 수 있는 존재가 왕이다.

어려운 문제가 앞에 있는가? 하나님은 그 문제를 감당할 수 있도록 기름부음을 통해 업그레이드를 하신다. 놀라운 하나님이다.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위치에 우리를 두신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나님이 그 자리를 선점하여 확보하신다. 말할 수 있는 위치에 우리를 두신다. 힘을 사용할 수 있는 위치에 우리를 두신다. 하나님은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재적 지위의 업그레이드를 주실 것이다.

(3) 갑절로 부어주신다.

[열왕기하 2:9-10]

9 요단 강 맞은쪽에 이르러,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나를 데려가시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해주기를 바라느냐?"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스승님이 가지고 계신 능력을 제가 갑절로 받기를 바랍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10 엘리야가 말하였다. "너는 참으로 어려운 것을 요구하는구나. 주님께서 나를 너에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네가 보면, 네 소원이 이루어지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엘리야’라는 위대한 선지자의 뒤를 이은 사람이 그의 영적아들 ‘엘리사’이다. 엘리사가 감당해야 할 일은 엘리야가 감당하기도 벅찬 일들이었다. 그래서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구했다. 스승님이 가지고 계신 능력을 갑절로 받기를 원한다고 고백한다(9절). 엘리야의 능력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시대였다. 그러나 엘리사는 감당할 수 있었다. 그 원인이 분명히 나와 있다. 갑절의 축복을 받은 엘리사 때문이다.

어려움이 있는가? 하나님은 갑절의 축복을 준비하신다. 어려움이 예상되는 시대이다. 우리가 감당해야 할 많은 일이 있다. 우리의 힘을 보고 있고, 예전의 능력을 보고 있는가? 그러면 아무리 위대한 사람도 ‘엘리야의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 엘리야의 능력을 갑절로 부어주시는 엘리사의 마음이 중요하다. 갑절이면 해결할 수 있다. 놀라운 말씀이다. 하나님은 갑절로 부어주실 것이다. 그래서 감당하게 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염려하지 마라. 엘리사의 마음으로 사모하여 나아가자.

‘갑절로 부어주셔서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자’

‘감당하게 하시리라. 감당하게 하시리라. 감당하게 하시리라’